

중국외교안보연구의 '구름'과 '시계' 모형

박홍서(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위원)
hongseo@hanmail.net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중국외교안보의 기존 연구 및 |
| II. 중국외교안보연구의 분석기준:
'구름'과 '시계' | 그 발전
IV. 결 론 |

주제어 : 중국외교, 중국안보, 방법론, 구름과 시계

본 논문의 목적은 포퍼의 과학철학적 은유인 '구름'과 '시계'를 이용해 중국외교안보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계모형의 연구들은 일반 국제관계이론의 개별사례로서 중국을 설명하는 연역법칙적 설명방식을 선택하고 있으며, 반면 구름모형은 중국의 특수한 문화 및 역사를 통해 중국의 현 시기 외교안보행태를 설명하는 귀납서술적 연구전략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름과 시계 모형은 모두 그 연구 전략 특성에 내재한 문제점을 갖는다. 즉, 시계모형이 중국적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함으로써 특수성을 사장시키고 변화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면, 구름모형은 설명방식의 논리적 모순뿐만 아니라 타국가의 외교안보행태와의 비교연구를 간과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물리적 세계에 위치한 행위자가 문제풀이를 통해 외부환경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진화론적 접근"은 향후 중국외교안보연구에 있어 보다 적실한 연구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05년 11월 8일 / 심사완료일: 2005년 11월 16일

I. 서론

과학의 영역은 한계가 없다. 즉, 과학의 재료(material)는 끝이 없는 것이다. 자연현상의 모든 집합들,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들, 그리고 과거 혹은 현재의 모든 단계들이 과학의 재료이다. [따라서] 모든 과학의 통일성은 그것의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방법(method)에 있다. — 칼 피어슨(Karl Pearson)¹⁾

탈냉전 시기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국제정치학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즉, 중국이 미국주도의 일극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가정되면서 국제정치 이론가와 중국학 학자(Sinologists)들 모두에게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중요한 연구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면, 중국외교안보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이론연구에 관한 내용소개 및 분류가 아니라 그 연구방법을 분석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하다. 사실, 중국외교안보연구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석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변인 혹은 분석수준의 구분을 통한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연구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은 상대적으로 희소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닝(Lu Ning)은 중국외교안보연구를 전통적(역사/문화, 이데올로기, 그리고 현실주의) 시각 및 제도주의적 시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Ning 1997, 171-184), 킴(S. Kim)은 대내적 변인, 대외적 변인, 그리고 대내외 연계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있다(Kim 1998, 3-33). 한편, 로이(D. Roy)는 국제정치이론의 분석수준에 근거해 체제수준적 접근과 국가수준적 접근으로 분류하고 있다(Roy

1) King *et al.*(1994), 9에서 재인용.

1998, 227-245). 국내에서는 차창훈의 연구가 있는데, 그 역시 김의 기준에 근거해 중국외교안보연구를 분석하고 있다(차창훈 2003).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 논문은 중국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방법들을 분석·비판하고 진보적 연구전략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포퍼(K. Popper)의 과학적 은유인 ‘구름(cloud)’과 ‘시계(clock)’ 개념을 그 분석기준으로 도입할 것이다. 즉, 본 논문은 기존의 중국외교안보연구를 법칙적 보편성(nomothetic)을 강조하는 연역적 연구와 역사문화적 특수성(idiosyncratic)을 강조하는 귀납적 연구로 구분하고 분석할 것이다. 2장에서는 우선 구름과 시계에 관한 포퍼의 은유를 설명하고 이 기준에 따른 사회과학이론의 분류가능성을 서술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방법론적 기준에 따라 중국외교안보연구를 분석하고, 동 주제에 관한 보다 적실한 연구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II. 중국외교안보연구의 분석기준: ‘구름’과 ‘시계’

포퍼는 그의 저서 『객관적 지식(Objective Knowledge)』에서 물리체계를 표상하는 두 가지 은유, 즉 구름과 시계 모형을 도입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름모형은 물리세계가 매우 비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파리떼”의 형태를 갖는다는 논리이며, 반면 시계모형은 “태양계”의 운행처럼 물리세계는 매우 법칙적이라는 논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은유는 하나의 연속체의 양극단을 형성하면서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기준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뉴턴의 과학혁명 이래 물리체계를 시계모형으로 보려는, 즉 “모든 구름은 시계이다(All clouds are clocks)”란 결정론적 논리가 팽배하였다면, 20

세기 초 양자역학(quantum theory)의 등장이후 반대로 “모든 시계는 구름이다(All clocks are clouds)”라는 비결정성 논리가 유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opper 1979, 206-214). 결론적으로 포퍼는 이와 같은 구름과 시계 모형 각기 하나만으로는 세계를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양측을 어떻게 매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Popper 1979, 228).

한편, 알몬드(G. Almond)와 겐코(S. Genco)는 이와 같은 포퍼의 은유를 정치학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구름과 시계 모형은 정치학 연구행태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그들은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시계모형을 규칙성 발견, 포괄법칙에 의한 연역적인 설명(D-N: Deductive-Nomological model), 그리고 인과성을 추구하는 연구행태라고 규정하면서 자연과학 방법의 도식적인 사회과학 적용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실한 정치학 연구를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개입을 주요한 조건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Almond and Genco 1977, 489-522).

결국 시계와 구름 모형은 라긴(C. Ragin)의 표현을 빌면, 대략 “변인중심적(variable-oriented)” 연구와 “사례중심적(case-oriented)” 연구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Ragin 1987).²⁾ 전자가 사례들의 개별적 특수성이 아니라 사례간 보편성을 추출하는 연구태도를 갖는다면, 후자는 사례자체의 전개과정 및 특수성에 연구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귀납적 연구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두 가지 연구방식은 그 성격상 상호 대비되는 문제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례중심 연구는 각 개별사례의 “구체화(particularizing)”에 치중함으로써 사례간 규칙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반면 변인중심 연구

2)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과학행태를 양분한 문헌으로는 King, Keohane, and Verba (1994); Van Evera(1997); Harvey and Brecher(2002) 참조.

는 반대로 추상적인 일반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구대상에 내재되어 있는 특이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Ragin 1987, 69).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름과 시계의 은유를 이용해 중국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즉, 시계모형의 연구들은 일반국제정치이론을 이용해 중국외교안보정책이라는 개별사례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구름모형 형태의 연구들은 여타 국가와 유사성을 갖지 않는 중국 특유의 외교안보정책에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연구를 구름과 시계모형의 각기 한 측에 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전략의 성향이 어느 쪽에 더 근접한지는 판단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로 하여 중국외교안보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

III. 중국외교안보의 기존 연구 및 그 발전

1. 중국외교안보연구의 시계모형

상술한 바, 중국외교안보의 시계모형 연구는 중국외교안보행태의 특수성을 배제하며 여타국가와 유사성을 가정하는 연역법칙적 연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정체성 및 역사문화적 특수성은 연구과정에 있어 주요한 변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며 대신 합목적적 행위자로서의 중국이 전제된다. 따라서, 중국은 여타 다른 국가와 그 외교안보행태가 “다르지 않다”고 가정된다. 결국, 중국의 외교안보행태는 “시계와 같은(clocklike)”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국제관계 주류이론인 신현실주의(neorealism) 이론을 통한 중국의 외교안보연구는 전형적인 시계모형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현실주의 이론의 태두인 왈츠(K. Waltz)에 따르면, 신현실주의 이론은 각 개별국가의 외교안보 행태를 정책결정자의 특성(제1이미지)이나 국가성격(제2이미지)으로 설명하기 보다 오직 그 국가가 위치한 타 국가와의 세력관계(제3이미지: distribution of power)로 설명한다. 따라서 각 국가의 특수성은 배제되며 모든 개별국가는 무정부상태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유사한 행위자가 된다(Waltz 1979, 79-80). 그러므로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외교안보의 설명논리는 “중국은 무정부 상태하에서 타국가와의 세력배분에 따라서 자국의 대외행태를 결정한다”라고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앵퀸(M. Ng-Quinn)의 연구는 신현실주의 보편이론을 통해 중국외교안보를 분석하려는 대표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외교안보의 설명은 특수성(정책결정자, 국내정치)과 규칙성(국제체제)의 조합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전자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중국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설명변인인 것이다(Ng-Quinn 1983, 220-221). 한편, 디트머(L. Dittmer)는 소위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의 분석모형을 이용해 1949년부터 1978년까지의 중·미·소 관계를 연역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가버(J. Garver) 역시 1996년 중·러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형성은 탈냉전기 미·일 동맹체제 강화에 대항하려는 중국의 세력균형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시계모형의 연구행태를 보이고 있다(Dittmer 1981; Garver 1998, 117-119). 뿐만 아니라, 로이와 크리스텐센(T. Christensen)도 중국외교안보정책의 규칙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이에 따르면, 중국외교안보행태는 비록 역사, 국내정치 및 파벌이라는 대내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

이나 신현실주의적 논리는 여전히 가장 적실한 설명논리로 가정될 수 있다(Roy 1998, 3-5). 크리스텐센은 신현실주의 이론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개념을 이용해서 미일 동맹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일국의 방어적 군비 증강을 타국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안보딜레마 논리는 탈냉전기 동아시아 질서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역미사일 방어체제(MD)는 그것이 방어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중국지도부로 하여금 안보취약성을 인지하도록 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긴장되게 만드는 주요한 동인이라는 것이다(Christensen 1996, 43).

현실주의 이론에 기초해 중국의 구체적인 군사행동 사례를 분석한 연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파이팅(A. Whiting)은 중국을 합목적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1940년부터 1996년까지 발생하였던 중국의 군사행동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1950년 한국전쟁, 1954, 1958, 그리고 1962년 대만해협위기, 1962년 중인분쟁 1965~1968년 베트남전쟁, 1969년 중소분쟁, 1979년 중월분쟁 및 1995~1996년 대만해협위기에서 나타난 중국의 안보행태는 억지와 압박외교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 전략적 대응이었다(Whiting 2001, 103-31). 또한 거토브와 황(M. Gurtov and B. Hwang)은 그들의 1980년 저서인 『위협에 직면한 중국(*China under Threat*)』 1장에서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위협이 연계될 시 극대화되는 정책결정자들의 위협인식에 관해 이론적 설명을 제시한 후 한국전, 1958년 대만해협 위기, 1962년 중인분쟁, 1965년 베트남전 및 1969년 중소분쟁시 중국의 대응양태를 그 개별사례로서 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Gurtov and Hwang 1980, 20).

한편,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소위 ‘중국위협

론'에 관한 주장들 중 상당수는 중국의 성장이라는 현상을 국제관계 이론의 개별사례로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역법칙적 연구전략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츠(R. Betts, 31-32)는 세력균형의 붕괴는 국가간 분쟁을 확대시킨다는 보편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해 중국의 최근 성장을 분석하고 있다. 즉,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이 불확실하게 변할 것이며, 따라서 과거 소련의 위협 및 일본과의 무역마찰보다 심각한 대미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로이 역시 중국을 동아시아의 세력 공백을 채울 유력한 후보국가로 지목하면서 중국위협론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도 세력균형이론에 근거한다는 측면에서 연역적 설명방식을 취하고 있다(Roy 1995, 53). 결국, 이들 논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향후 중국의 패권국가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위협론을 비판하는 일부의 주장들 역시 국제관계의 보편이론에 기반해 반중국위협론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역시 시계모형을 추구한다. 특히, 이들은 중국위협론자들과 동일하게 중국을 세력균형이론의 개별사례로 간주하면서도 현재 중국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붕괴시킬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드윈(P. Godwin)은 중국의 군사력은 낙후되어 있으며, 국방현대화 역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현대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추구되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Godwin 1997, 53). 또한, 나이(J. Nye)는 군사정보기술의 기준에서 볼때 중국군의 수준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길(B. Gill)과 오헨런(M. O'Hanlon)도 중국군의 투사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위협론을 비판하고 있다(Nye 1997/1998, 69-70; Gill and O'Hanlon 1999, 56). 결국 중국위협론 혹은 반중국위협론은 그 주장

이 상반되지만 세력균형이론을 전제로 해서 중국이란 개별사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히 연역적 설명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현실주의 이론 이외에 자유주의 국제관계이론으로 중국외교안보행태를 설명하려는 시도 역시 시계모형에 근접한 연구라 할 수 있다.³⁾ 예를 들어, 로빈슨(T. Robinson)은 개혁개방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을 보편이론인 상호의존론의 개별사례로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는 탈냉전기 중국의 외교안보행태는 상호의존, 의존 및 독립적 요소가 혼합된 양상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Robinson 1998, 210-212). 또한, 탈냉전기 중국의 대미외교정책을 문제영역에 따른 갈등과 협력의 공존전략이라고 분석하는 연구 역시 신자유제도주의의 개별사례로 중국을 대입했다는 측면에서 연역적 설명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홍서 1997, 97-121). 동일한 맥락에서 상존의존론에 기반해 중국위협론을 비판하는 연구 역시 연역적 설명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세안(ASEAN) 국가들과 경제협력 확대에 의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적 군사행동이 억지되고 있다는 주장은 상호의존론에 근거한 연역적 설명인 것이다(Dobson and Fravel 1997, 262-263).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외교안보행태에 관한 연역법칙적 연구들은 일반 국제관계이론을 제시하고 중국을 그 이론에 대입하려는 연구전략을 채택한다는 측면에서 시계모형의 방법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전략은 연역법칙적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그대로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알몬드와 젤코에 따르면, 인간사회의 다양한 특수성을 자연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3) 상호의존론 및 신자유주의이론에 대해서는 Keohane and Nye(1977) 참조. 저자들은 이 책에서 상위정치(high politics: 군사, 안보)와 하위정치(low politics: 경제)를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영역에 따른 국가간 협력과 갈등의 공존을 주장하였다.

것은 사회현상의 ‘조건’만을 설명하는데 그치는 한계에 직면한다(Almond and Genco 1977, 493). 이렇다면, 지역연구를 연역법칙적 이론을 통해 분석하려는 것 역시 필연적으로 그 지역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 및 행위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적실한 이해를 결여하게 될 위험성에 직면하는 것이다(Schwartz 1996, 108-109; Pye 1988, 18-19). 이와 같은 측면에서 화이팅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외교안보행태를 보다 적실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분석과 함께 중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이 최소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Whiting 1998, 521).

2. 중국외교안보연구의 구름모형

중국외교안보행태에 관한 구름모형은 중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중국외교안보정책은 그 특이성으로 인하여 일반국제관계이론의 개별사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중국학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중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등을 통해 중국의 외교안보행태를 설명하려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Roy 1998, 235-236).

이런 의미에서 페어뱅크(J. Fairbank)의 연구는 중국외교안보행태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 시원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냉전시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중국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중국적 전통으로부터 당대 중국외교안보정책을 분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록 역사적 변인 하나만으로는 중국외교정책을 설명할 수 없지만 현시기 중국외교행태가 역사와 동떨어져 운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현실주의의 극치”라는 것이다(Fairbank

1969, 450). 구체적으로 페어뱅크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①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② 자기폐쇄적인 대륙문화, 그리고 ③ 중화사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 시기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Fairbank 1969, 451-463; Fairbank 1968). 고든(L. Gordon 1969, 45-51) 역시 중국의 전통과 현재 사이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① 자민족중심주의, ②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 ③ 배외주의, 그리고 ④ 주변지역에 대한 전략 등은 역사적으로 일관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변지역에 대한 중국외교안보행태는 일관적인데, 예를 들어 대만, 베트남, 인도, 외몽골, 시베리아 및 한국에 대한 현 시기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은 과거시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슈왈츠(B. Schwartz 1968, 276-290) 역시 전통적 중화사상 및 20세기 사회주의 이념을 중국외교안보행태의 주요한 동인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역사문화적 접근을 하고 있다.

한편, 중국위협론의 근원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려는 연구들 역시 그 귀납적 연구전략으로 인해 구름모형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스타인(R. Bernstein)과 먼로(R. Munro)는 “역사적으로 중국은 힘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정치를 고수해 왔으며 따라서 평화보다는 주권, 민족적 일치, 그리고 정권의 안정에 최우선의 가치를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위협론을 정당화하고 있다(Bernstein and Munro 1997, 30). 반면, 동일한 역사적 관점에서 반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연구 역시 귀납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천(Jian Chen)은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민족이 지배하던 시기를 제외하고 팽창정책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마오쩌둥시기 역시 사회주의 혁명을 전파하려는 노력은 있었어도 결코 영토팽창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Chen 1993, 193-194).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적 전통을 통해 현 시기 중국의 외교안보 행태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그 연구전략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이와 같은 연구는 소위 “귀납의 문제”에 직면한다. 흄(D. Hume)에 따르면, 이미 발생한 단칭언명들로부터 보편언명을 정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구자의 “관습” 및 “믿음”에 근거하는 것뿐이다(Hume 1968, 99). 이렇다면, 중국위협론을 역사적으로 정당화 혹은 반증하려는 시도들은 역사적 단칭사례들로부터 현재의 중국외교안보행태를 일반화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연구자의 “자기예언”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oss 1997, 33). 둘째, 역사문화적 접근은 중국문화의 “단일성”을 무리하게 강조함으로써 실제 중국 역사에서 나타는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즉, 중국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단일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서구적 현실주의와 구별되지 않는 측면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것이다(Feuerwerker 1972, 4). 이렇다면 중국의 독특한 역사문화를 통해 현 시기 외교안보정책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못한 연구전략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보편이론을 통해 중국외교안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으나, 관찰의 이론의존성이란 관점에서 그 비판의 타당성은 수용되기 어렵다. 즉, 인간의 경험은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경험적 관찰도 이미 이론적 전제를 기반한다는 것이다.⁴⁾ 이렇다면, 중국은 특수하고 따라서 경험적 관찰을 통해 그 특수성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례중심연구도 이미 이론적 연구인 것이다(Rosenau 1998, 524-525).⁵⁾

4) 관찰의 이론의존성은 Hanson(1958); Popper(1979), 71-72 참조.

5) 슈왈츠는 관찰의 이론의존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이론 역시 관찰 의

한편, 역사문화적 설명 외에 중국의 국내정치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교안보행태를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중국적 맥락”을 분석의 주요영역으로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구름모형에 위치시킬 수 있다 (Roy 1998, 236). 예를 들어, 스웨인(M. Swaine)은 중국내부의 정치-군사적 리더십 변화, 사회변화, 지식인의 변화 및 경제적 변화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외교안보행태의 유형이 독단적인 형태, 방어적 형태, 그리고 협력적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waine 1995). 바크만(D. Bachman) 역시 중국외교안보행태의 국내적 변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질서 속에 위치해 있고 경제적 운용기제도 다른 국가와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행태는 국내적 동인에 의해 운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증가되는 것이다 (Bachman 1989, 32-34; Roy 1998, 23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을 통해 중국외교안보행태를 분석하려는 연구도 중국적 특수성을 전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샴보(D. Shambaugh)는 1991년 저서 『아름다운 제국주의자(*Beautiful Imperialist*)』에서 중국의 대미정책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정책결정자들의 대미인식을 전제하였다. 그에 따르면, 중국지도부는 ‘존경’과 ‘모욕’이라는 양면적인 대미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72~1990년까지의 중미관계는 화해와 긴장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Shambaugh 1991, 3-5). 또한 샴보는 탈냉전기 중국인민해방군 지도부의 대외인식을 분석하면서 그 양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즉,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안보상황이 매우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은 미국의 패권추구 및 동아시아 지역의

존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역연구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있다(Schwartz 1996, 102-104).

잠재적 안보위협에 대해서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Shambaugh 1999/2000, 52-79).

사실, 이와 같은 중국외교안보행태의 대내적 접근은 국제체제적 설명을 보완하는 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구조적 설명이 중국이란 개별사례를 연역이론에 대입시키는 연구전략이라면 중국의 정책결정구조 및 인식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구조적 설명이 간과하는 단위수준의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적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은 “전도된 제2이미지(second image reversed)” 개념을 기반으로 중국외교안보행태는 체제적 변인과 국내적 변인의 환류로 간주하며, 이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적실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Kim 1998, 23).⁶⁾

한편, 최근 전략문화를 통해 중국외교안보행태를 분석하려는 연구들이 성향을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대안이론으로 간주되고 있는 구성주의 이론상의 외교안보 분석틀이라고 할 수 있다(Glenn, Howlett, and Poore 2004, 3). 이에 따르면, 한 국가의 대외행동은 국제관계의 세력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그 국가에 고유하거나 혹은 타국과의 관계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규범에 따라 이루어진다(Jepperson, Wendt, and Katzenstein 1996, 54-65). 특히, 전략문화 접근법은 주류이론의 과학적 방법론을 차용하여 기존의 귀납서술적 역사문화 접근법과는 상이하게 문화적 접근의 이론화를 도모하고 있다(Johnston 1995, 18-2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략문화를 통해 중국의 안보행태를 설명하는 연구는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델만(J.

6) 구르비치(P. Gourevitch)에 따르면, 전도된 제2이미지란 국가의 성격(제2이미지)이 국제체제(제3이미지)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내정치는 국제정치의 결과이다(Gourevitch 1978, 911).

Adelman)과 스(Chih-yu Shih)에 따르면, 중국은 물리적 국가이익이란 동인이 아니라 영토보전 및 적에게 중국의 우월성을 가르치기 위해 군사행동을 한다(Adelman and Shih 1993, 28-33). 또한 존스톤(A. Johnston)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군사행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현실주의적 전략문화에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적 위협이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은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Johnston 1996, 219-221). 한편, 스코벨(A. Scobell)은 중국은 평화적 전략문화 및 현실주의 전략문화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이 양면적 문화는 민간-군사 문화에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cobell 2003, 4-5).

그러나 이와 같은 중국안보행태에 대한 전략 문화적 접근은 비록 그 설명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⁷⁾ 우선, 전략문화적 접근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비해 간결하지 못한 약점을 갖는다. 즉, 경험과학의 주요한 준칙 중의 하나인 간결성의 원리(Occam's Razor: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간결한 설명이 가장 우월하다)를 전략문화 접근은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⁸⁾ 예를 들어, 신현실주의 이론이 중국의 안보행태를 간결하고 검증가능한 “세력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데 비해(Desch 1998, 160-61; Roy 1998, 239) 전략문화적 접근은 동일대상을 보다 복잡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문화변인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심지어 일부 연구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변인인 물질적 세력관계

7) 과학이론은 내용이 아니라 그 연구방법의 논리성이 평가될 때 보다 적실하게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비교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의 특징은 그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King, Keohane, and Verba 1994, 9).

8) 간결성의 원리에 대해서는 Wright(1964), 21 참조.

까지도 그 인과모형에 추가(Johnston 1996, 256)시킴으로써 간결성의 원리를 심각히 위배하고 있기까지 하다.

둘째, 전략문화적 접근은 그 분석모형이 “동어반복적” 성격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적 설명이라는 것은 피설명항을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갖는 설명항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설명항과 피설명항이 동일하다면 그와 같은 분석은 순환적이다(Popper 1979, 192-93). 이렇다면, 전략문화 접근은 중국의 안보행태라는 피설명항을 역시 중국의 문화 혹은 정체성이라는 설명항으로 분석함으로써 동어반복의 성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Lake and Power 1999, 18).

셋째, 중국안보정책을 전략문화적 접근법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효율적인 연구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중국은 서구국가에 비해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중국이란 사례는 전략문화 접근의 “가장 그럴듯한 사례(most likely case)”에 불과하다는 것이다(Desch 1998, 159-60). 예를 들어, 과거 한-중관계는 소위 “중국적 세계질서” 속에서 조공체제라는 특수한 정치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은 문화적 접근의 적절한 사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이유로 역대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의 사례는 신현실주의 이론의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례(least likely case)”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의 검증이란 측면에서도 신현실주의적 접근은 적절한 연구전략인 것이다.⁹⁾

이렇다면, 전략문화적 접근은 비록 그 연구전략에 있어 문화이론

9) “가장 그럴듯한 사례” 및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례”에 관해서는 Levy(2002), 143-145 참조.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을 설명한 논문은 Park(2005) 참조.

에 근거한 연역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례를 보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현실주의 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그와 같은 연구전략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서, 존스톤은 세력관계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전략문화가 구조적 현실주의에 비해 우월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Johnston 1996, 257-259). 그러나 분명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세력관계가 유리한 상황에서 국가가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구조적 현실주의의 이상사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위수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구체적 대응양태는 무력사용으로부터 비대응까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3. 중국외교안보연구의 진보가능성?

이상에서 중국외교안보에 관한 연구들을 포퍼의 은유에 따라 시계 모형과 구름모형으로 대별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양자의 연구전략을 상호 배타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양 연구전략의 대략적인 특성에 근거한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계모형의 연구전략에 기초한 연구들은 국제관계의 일반이론을 전제로 상정하고 중국외교안보행태를 그것의 개별사례로 대입시켜 분석하는 연역법칙적 성향을 갖는다. 반면, 구름모형의 연구들은 중국의 역사문화를 통해 현재의 중국외교안보행태를 설명하는 귀납서술적 연구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계모형의 연역이론적 연구전략을 이용 중국의 외교안보행태를 설명하려는 전략문화적

10) 이와 같은 주장은 왈츠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에 대해, Waltz(1979), 72; Waltz(1986), 331-332 참조.

근이 각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연구전략은 그 설명방식에 본연적으로 내재한 한계에 직면한다. 즉, 시계모형은 중국을 보편이론에 도식적으로 대입함으로써 중국적 특수성을 간과할 수 있으며 구름모형의 경우 귀납적 설명방식의 논리적 오류성을 피할 수 없고, 전략문화접근의 경우는 설명방식의 “비효율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연역법칙 연구가 중국적 사례가 갖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순화시킨다면, 귀납서술적 연구는 중국외교정책과 국제정치와의 연관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Wang 1998, 500).

이와 같다면, 보다 적실한 중국외교안보행태 연구방식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에 대해 포퍼는 또 한 번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그가 구름모형과 시계모형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주장하였던 “유연한 통제(plastic control)” 개념은 상기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퍼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시계모형은 결정주의적 시각일 뿐이며, 따라서 변화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닫혀진 세계(closed system)”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행동이 기계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악몽’이 발생한다(Popper 1979, 217-219). 반면, 구름모형의 비결정주의 역시 인간행위의 동인을 순전한 우연으로 간주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정주의와 우연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유연한 통제”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물리세계는 인간에게 영향을 줌과 동시에 인간의 목적, 사고, 결정, 의도, 이론 및 가치와 같은 관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거나 변화된다. 즉, 물리세계는 우연 및 도식적 물리법칙에 의해 결정되는 닫혀진 체계가 아니라 인간들의 “시행착오”를 통한 연속적인 “문제풀이” 과정으로 요약되는 열린 체계라는 것이다

(Popper 1979, 254-255).

이와 같은 의미에서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국제환경 속에서 국가이익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왔는가에 대한 탐구는 중국외교안보행태의 결정론적 혹은 비결정론적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함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연구전략은 중국외교안보정책의 변화가능성을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도식적인 시계모형의 결정론적 시각을 보완할 수 있으며, 반대로 합목적적 문제풀이로 그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구름모형의 비체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49년 이후 중국의 외교안보행태는 내적으로 공산정권의 체제유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미소 양극체제 속에서 국가생존 확보라는 문제풀이의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은 대약진(1958~1960), 문화대혁명(1966~1976)과 같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결국 등소평 시기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최초 제기된 문제에 대한 보다 적실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설명될 수 있다.¹¹⁾ 물론, 이와 같은 중국외교안보행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이론적 함의는 차후 보다 정교한 경험적 연구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11) 이러한 의미에서 햄린(C. Hamrin)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중국의 “적응(adaptation)”, “습관(habit)”, 그리고 “학습(learning)”이란 개념을 이용해 중국의 외교안보행태가 물리적인 국제체제와 주관적인 요소들(가치, 인식, 선택 및 판단)들에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Hamrin(1998), 70-112 참조. 국제정치에 있어서 진화이론(evolutionary theory)의 적용 및 그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Kahler(1999), 165-196 참조.

IV.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기존의 중국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연구들을 포퍼의 은유인 구름과 시계 모형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들을 비판하였다. 또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연구전략으로서 구조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소위 “진화론”적 연구전략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언급하지 않았던 몇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중국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외부시각(주로 미국)이었다는 측면이다. 이렇다면, 중국 내에서의 외교안보연구는 어떠한가란 문제는 필수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자국의 대외행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 내에서의 외교안보연구가 보이는 과도한 “정책지향성”은 우선 명확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국학계의 주류학자들은 서구 국제관계이론을 통한 중국외교안보분석이 중국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강대국중심의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그들은 외교연구의 핵심은 국가목표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Wang 1998, 481-505; 課題組 2005, 343-351; 馮特君 2005, 352-359). 예를 들어, 마오쩌둥(毛澤東)시기의 “중간지대론(中間地代論)”, “제삼세계론(第三世界論)”, 덩샤오핑(鄧小平)시기의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으로부터 최근 “화평굴기(和平崛起)”에 이르기까지 중국내 외교안보연구는 주로 외교원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중국외교의 운용방향에 대해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蒲寧 2005, 19-32; 元成章 2005, 33-60; 余麗 2005, 210-226). 이렇다면, 중국내 외교안보연

구를 분석할 때 “존재”와 “당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외교안보 연구자들이 갖는 지식사회학적 분파현상은 명확히 지적되어야 할 사안이다. 즉, 중국이라는 동일한 “실재”를 이론 지향적 연구가들은 보편이론의 개별사례로 간주하면서 “중국은 같다”라는 테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반면, 사례지향 연구가들(주로 지역전문가들)은 “중국적 특수성”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분파의식은 중국외교안보를 객관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장애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이란 실재가 아니라 연구자간 직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성된 중국연구는 중국외교안보의 객관적 실체에 대한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론가 및 지역연구가들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일방적인 연구전략이 초래하는 “과의식적 사색”(이론가의 경우)과 “무의식적 사색”(지역연구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홍서. 1997. “문제영역(issue-area)을 통해본 탈냉전기 중미관계.” 『중국연구』 19, 97-121.
- 차창훈. 2003. “중국의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이론적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37:1, 243-265.
- 課題組. 2005. “加強新世紀我國外交理論體系建設的思路.” 傅耀祖 外 編,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343-51. 北京: 時事出版社.
- 馮特君. 2005. “關於國際政治理論研究的幾點建設.” 傅耀祖 外 編,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352-359.
- 蒲 寧. 2005. “論毛澤東的地緣戰略觀.” 傅耀祖 外 編,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19-32.
- 元成章. 2005. “論鄧小平國際關係思想內涵十要素.” 傅耀祖 外 編,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33-60.
- 余 麗. 2005. “論「和平崛起」思想.” 傅耀祖 外 編, 『中國國際關係理論研究』, 210-26.
- Adelman, J. and C. Shih. 1993. *Symbolic War: The Chinese Use of Force, 1840-1980*. Taipei: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 Almond, G. and S. Genco. 1977. “Clouds, Clocks, and the Study of Politics.” *World Politics* 29:4, 489-522.
- Bachman, D. 1989. “Domestic sources of Chinese Foreign Policy.”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Boulder, CO: Westview Press.
- Bernstein, R. and R. Munro. 1997.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76, 18-32.
- Betts, R. 1995. “Wealth, Power, and Conflict: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R. Ross, ed., *East Asia in Transition: Toward a New Regional Order*. New York, NY: M. E. Sharpe.

- Chen, Jian. 1993. "Will China's Development Threaten Asia-Pacific Security?" *Security Dialogue* 24:2, 193-196.
- Christensen, T. 1999.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23:4, 49-80.
- Desch, M. 1998. "Assessing the Importance of Ideas in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ecurity* 23:1, 141-170.
- Dittmer, 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485-515.
- Dobson, W. and M. T. Fravel. 1997. "Red Herring Hegemon: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Current History* 96:611, 258-263.
- Fairbank, J.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69. "China's Foreign Policy in Historical Perspective." *Foreign Affairs* 47:3, 449-463.
- Feuerwerker, A. 1972. "Chinese History and the Foreign Relations of Contemporary China." *China in the World Toda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02. 1-14.
- Garver, J. "Sino-Russian Relations."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114-132. Boulder, CO: Westview Press.
- Gill, B. and M. O'Hanlon. 1999. "China's Hollow Military." *The National Interest* 56, 55-62.
- Glenn, J. and H. Darryl. 2004. "Neorealism." J. Glenn, D. Howlett, and S. Poore, eds., *Neorealism Versus Strategic Culture*, 20-44. Burlington, VT: Ashagte.
- Gordon, L. "Communist China's Foreign Policy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History Teacher* 2:4, 45-51.
- Gourevitch, P. 1978. "The Second Image Reversed: the International Sources of Domestic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4, 881-912.

- Godwin, P. 1997. "Uncertainty, Insecurity, and China's Military Power." *Current History* 96:611, 252-257.
- _____. 1998. "Force and Diplomacy: China Prepar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171-192. Boulder, CO: Westview Press.
- Grutov, M. and B. Hwang. 1980.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amrin, C. 1998. "Elite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T. Robinson and 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70-112.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Hanson, N. 1958. *Patterns of Discove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vey, F. and M. Brecher, eds. 2002. *Evaluating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Studies*.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Hume, D. 1968. *A Treatise of Human Nature. Vol 1*. London, UK: Everyman's Library.
- Japperson, R., A. Wendt, and P. Katzenstein. 1996.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P.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33-78.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hnston, A. 1995.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Cultural Realism and Strategy in Maoist China." P.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216-270.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Kahler, M. 1999. "Evolution, Choice, and International Change." D. Lake and R. Powell, ed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65-19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ohane, R. and J.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MA: Little, Brown.
- Kim, S. 1998. "Chinese Foreign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3-33. Boulder, CO: Westview Press.
- King, G., R. Keohane, and S.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ke, D. and R. Power. 1999. "International Relations: A Strategic-Choice Approach." D. Lake and R. Powell, eds., *Strategic Choi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3-38.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vy, J. 2002. "Qualitative Method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 Harvey and M. Brecher, eds., *Evaluating Methodology in International Studies*, 131-160.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g-Quinn, M. 1983. "The Analytic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7, 203-224.
- Ning, Lu. 1997. *The Dynamics of Foreign-Policy Decision Making in China*. Boulder, CO: Westview Press.
- Nye, J. 1997/98. "China's Re-emergence and the Future of the Asia-Pacific." *Survival* 39:4, 65-79.
- Popper, K. 1979. *Objective Knowledge*. Oxford, UK: Clarendon Press.
- Park, Hongseo. 2005. "A Neorealist Explanation of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h. D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Pye, L. 1988. *The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s*.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Ragin,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binson, T. 1998. “[In][ter] dependence in China’s Post-Cold War Foreign Relations.” S. Kim, ed., *China and the World: Chinese Foreign Policy Faces the New Millennium*, 193-216. Boulder, CO: Westview Press.
- Rosenau, J. 1998. “China in a Bifurcated World: Compe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T. Robinson and 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524-554.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Ross, R. 1997. “Beijing as a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76, 33-44.
- Roy, D. 1995. “Assessing the Asia-Pacific Power Vacuum.” *Survival* 37:3, 45-60.
- _____. 1998. *China’s Foreign Relations*. Boston, MA: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hambaugh, D. 1991. *Beautiful Imperiali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9/2000. “China’s Military Views the World.” *International Security* 24:3, 52-79.
- Schwartz, B. 1968. “The Chinese Perception of World Order, Past and Present.” J.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276-29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6. *China and Other Matters*. London, UK: Harvard University Press.
- Scobell, A. 2003. *China’s Use of Military Forces: Beyond the Great Wall and the Long Mar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ine, M. 1995.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 Santa Monica, CA: RAND.
- Van Evera. S. 1997. *Guide to Methods for Students of Political Sci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z, K. 1979.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 _____. 1986. "A Response to My Critics." Robert O.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ng, J. 1998.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A Chinese Perspective." T. Robinson and 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481-505.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ing, A. 1998. "Forecasting Chinese Foreign Policy: IR Theory vs. the Fortune Cookies." T. Robinson and D. Shambaugh, eds., *Chinese Foreign Policy: Theory and Practice*, 506-523.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1. "China's Use of Force, 1950-1996, and Taiwan." *International Security* 26:2, 103-131.
- Wright, Q. 1964. "Development of a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H. Harrison, ed., *The Role of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D. Van Nostrand.

Evaluating Methodology in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Hongseo Park
(Research Fellow,
Center for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methodology in the study of Chinese foreign policy. To this purpose, this article relies on Popper's scientific metaphor, "clouds and clocks." As noted, while the model of clouds means an indeterministic explanatory strategy on the world, the model of clocks can be regarded as a deterministic one. According to this standard, studies on Chinese foreign policy can be divided into the indeterministic model emphasizing "Chinese particularities" and the deterministic one applying general IR theories to Chinese practices. It would be difficult, however, for both strategies to escape from their own methodological limits such as over-simplification in the former and illogical reasoning in the latter. In this regard, evolutionary approach can be a meaningful candidate to reconcile the cloud and clock dispute.